

특허청, 여성발명활성화 종합 대책 수립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창의적인 여성발명가를 육성하고 국가기술혁신을 촉진하며 여성의 발명분야 진출을 적극 유도·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12월 '여성발명 실무대책반'을 구성, 그동안 수차례 논의를 거쳐 여성발명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여성발명활성화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03년)은 48.9%로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저조한 실정이며, 특히 인구증가를 저하로 고령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 특유의 섬세함, 유연성, 풍부한 감성 등 여성의 강점과 잠재력을 적극 개발하여 우수 발명가로 육성·활용함으로써 국가 기술혁신 및 여성인력 활용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여성발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 대책을 마련하였다. '여성발명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여대생을 우수 발명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발



지난해 5월에 개최된 '제10회 여성발명 우수사례 발표회'. 특허청은 여성발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이와 같은 대회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명가와 여대생간의 멘토링제 도입, 여대생 발명캠프 운영, 우수발명 여대생 장학금 지급, 지식재산권 교육 강좌 개설 외에 신진 여성연구원의 발명역량 강화를 위한 '특허정보활용 교육' 실시, '신진 여성발명가상' 제정·시상을 통해 사기양양 도모 등이 세워졌으며, 노동시장 외부에 있는 잠재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2006년 서울·부산·광주 등 3개 지역에 '지역여성발명교실'을 설치 후 연차적으로 전국 16개 시도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우수 여성발명인의 출원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변리상담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여성발명가에게 각종 지재권 무료 상담

및 변리비용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여성 우수발명이 사업화로 성공할 수 있도록 여성발명가에 대한 특허사업화협의회 자금 지원을 확대하며 '제1회 한·중·일 여성발명품 전시회(05년 9월)', '여성발명품 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국내외 판로 개척 및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발명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래 지자체 중심으로 실시하던 '여성지식재산권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각종 직능단체 등으로 교육대상 계층을 다양화함으로써 여성발명 저변을 확대하고, '여성발명 우수사례 발표회'와 '여성발명 성공사례집' 발간·배포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여성이 발명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은 이날 마련된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여성발명 실무대책반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허청과 WIPO 모든 특허문서 온라인 교환

특허청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모든 국제특허문서를 온라인(On-Line)으로 교환키로 합의했다고 지난 2월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WIPO에서 보내는 모든 문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게 되었으며 내년부터는 WIPO도 특허청의 모든 국제특허문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게 된다. 이럴 경우 문서 항공 송달 비용과 문서 전자화 비용, 민원인 수수료 등 연간 2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국제출원에 따른 정보도 신속하게 교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연간 50여종 66만건에 달하는 국제특허 문서를 종이 또는 CD로 교환하다보니 업무처리 지연 등을 초래해왔다. 특허청은 WIPO와의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 특허청과의 온라인 국제출원문서 교환을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허넷Ⅱ 시스템 개통식 개최

특허청은 오는 3월 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특허넷Ⅱ 시스템 개통을 기념하고 정보화를 통해 특허행정혁신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특허넷Ⅱ 시스템 개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24시간 및 365일 풀가동이 가능한 전자민원서비스와 정부부처 최초로 온라인 재택근무가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특허넷Ⅱ 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을 기념하고 정보화를 통해 이룩한 특허행정혁신 성과를 알리기 위한 이번 개통식에는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혁신위원회,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 정보통신부 정보기반보호국 등의 정보화 관련부처 관계자들과 발명유관기관 단체장들이 자리한 가운데 진행될 것이다.

이번 개통식에서는 특허넷Ⅱ 시스템 사업 추진경과 보고와 관련 홍보 영상물 상영 및, 국제 특허 온라인 제1호 출원인에 대한 기념패 및 기념품 수여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국가연구개발특허지원단 발족식 개최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지난 2월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가 R&D사업에 따른 특허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국가 R&D 특허지원단 발족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특허지원단은 산자부(성장동력·중기거점·차세대신기술사업), 과기부(원자력연구개발사업), 정통부(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보건복지부(천연물신약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평가) 등 정부 부처의 중장기 대형 연구개발 기획과제 사업에 필요한 특허 정보를 지원하

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산자부 공동핵심기술개발사업과 중기청의 구매조건부기술개발 사업의 1차 선정된 4백50여개 과제를 대상으로 선행 특허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과제 선정의 평가 요소로 반영하게 된다. 이날 출범한 특허지원단은 1차적으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산자부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기술 로드맵을 포함한 33개 연구 기획 과제별 해당 기술 분야의 심사관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각 부처별 연구기획 과제가 확정되는 대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이들은 향후 각 연구개발 기획과제별로 구성되는 특허동향 조사팀에 참여해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전세계의 특허 정보를 조사·분석하는 일을 지원하게 되며, 연구 기획 및 평가 과정에 참여해 특허정보 조사·분석결과를 기술 로드맵 작성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올해 시범 사업은 국가 R&D 사업에 특허정보를 활용하는 첫 단추'라며 '향후 성과를 분석해 특허정보 활용이 국가 R&D 사업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 DMB 컨소시엄, 특허 8건 출원

지상파 DMB 희망사업자인 한국 DMB·CBS 컨소시엄(대표 정훈)은 DMB 방송을 통한 연동형 프로그램과 양방향 서비스 구현을 위한 특허 8건을 출원했다고 지난 2월 17일 밝혔다.

출원 내용은 리턴 채널을 이용한 DMB 방송 수신중 기부 서비스 시스템 및 제공 방법, 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DMB 방송 검색 시스템 및 검색 서비스 제공 방법, CBS(Cell Broadcasting System)을 이용한 DMB 방송 홍보 서비스 시스템 및 제공 방법, 타임 시프트 기능을 구비하는 이동 DMB 단말기 및 이동 DMB 단말기의 타임시프트 기능 구현 방법, 무선 데이터망 시스템을 이용한 DMB 방송 알람 서비스 시스템 및 제공 방법 등이다.

금호석유화학, 2백억원 특허 침해 소송

금호석유화학이 미국의 플렉시스 아메리카 엘퍼사로부터 2백억원 규모의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지난 2월 15일 회사 측에 따르면 플렉시스는 금호석유화학이 6PPD(고무의 노화를 방지하는 고무약품)를 제조하기 위해 중국 시노켄사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원료인 4-ADPA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해 제조됐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미국 오하이오 법원에 동시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손해배상 규모는 2백6억원. 금호석유화학 측은 '플렉시스가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며 '한국과 미국 법원에 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벤처 1호 박희재 교수, 대학에 80억 쾌척



서울대 실험실 벤처 1호인 SNU 프리시전 대표인 박희재 교수(기계항공공학·43)가 본인 소유의 주식 10만주를 이 학교 공대에 기부했다. 서울대에 따르면 박교수는 지난 1월 25일 자신의 벤처기업을 코스

닥에 성공적으로 등록한 뒤 보유주식 1백만여 주 가운데 10%를 공대 교육연구재단에 지원금으로 내었다. 이 주식은 지난 1월 말 코스닥 증가(1주 8만2백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80여억 원에 달한다. 학교 측은 박교수가 내놓은 기금을 'SNU 프리시전-박희재 연구기금'으로 명명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실험실 연구 성과의 국내외 특허출원 지원금 등 벤처연구 활동에 적극 지원키로 했다. SNU 프리시전은 '98년 2월 서울대 기계공학과 실험실 대학원생 5명과 박희재 교수가 창업한 서울대 실험실 창업벤처 1호로 최근 대학 실험실 벤처로는 처음으로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면서 시가총액 2천억 원대를 기록했다.

특허청 업무 효율성 위해 조직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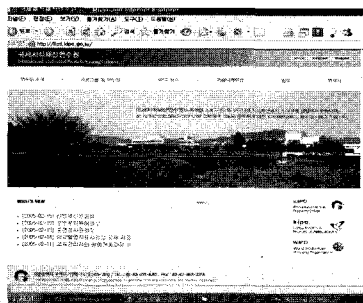
특허청은 지난 2월 1일부터 과 단위 보조기관을 팀제로 개편하였다. 이는 현행 국·과(담당관)의 경직된 계선 조직체계 내에서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선 출원인과 관련된 심사국과 출원·등록과를 팀제로 개편하게 된 것.

이를 위하여 1단계로 심사국 총 28개 담당관실에 대하여 84개팀으로 개편하고 출원과 5개팀 및 등록과 4개팀 등 총 93개팀으로 개편 운영할 계획이며 나머지 부서는 2단계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특허청은 밝혔다.

심사부서에서는 첨단 신기술 출원에 대한 복합·융합기술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독립적 심사의 오류를 방지하고 심사의 일관성·신속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심사 실무팀제의 시행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행 과장(담당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팀장에게 대폭 위임하여 결재단계를 '심사관→팀장' 또는 '팀장→국장'으로 축소하고 90% 이상을 팀장이 결정토록 함으로써 신속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결재구조를 단순화 하였으며, 과장도 1개팀의 팀장 역할을 병행하도록 하였다.

특허청은 이번 팀제 개편으로 각 팀원을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어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으며 결재권한을 팀장에게 대폭 위임함으로써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특허심사기간 단축에도 상당한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2단계 팀제 시행이 완료되면 기존 조직의 틀을 완전히 바꾸게 되어 기업형의 생산적이며 능률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새 모습으로 탄생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지난 2월 새롭게 개편한 홈페이지(<http://iipt.kipo.go.kr>)를 통해 우리나라 지식재산분야 교육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함으로써 외국 IP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지난 2월 국·영문 홈페이지(<http://iipt.kipo.go.kr>)를 전면 개편하고 이번 한해동안 제공될 모든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올해 총 94회 교육이 실시되고 이중 특허청 등의 공무원 대상 교육이 43회, 기업인·학생 등 민간인 대상 48회와 외국인 대상이 3회이다. 민간인 과정 중에는 지식재산권개요 분야 21회, 특허·상표의 권리취득방법 분야 7회, 특허·상표의 권리보호 및 구제 분야 3회, 신기술동향 분야 2회, 특허정보활용 분야 5회 및 학생발명 분야 10회가 포함되어 있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 내용의 주요특징 중 하나는 영문 홈페이지의 내용을 국문 홈페이지 내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마련한 것. 연수원은 이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나라 IP(지식재산)분야 교육내용을 자세하게 외국에 소개하여 외국 IP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수원은 이를 위한 첫 사업으로 지난 1월 18일 싱가포르의 IP 아카데미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앞으로 두 교육기관간의 IP분야 연구와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과거 행정자치부 소속 국제특허연수부에서 올해 초 특허청 소속으로 환원되면서 조직도 확대·개편된 것이다.

건양대 장감용 교수, '냄새 없는 천연 파스' 개발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장감용(50) 석좌교수가 천연재료를 사용해 냄새와 자극이 없는 파스를 개발했다. 장 교수는 '기존의 치료용 파스는 화학물질을 사용해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시키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 2년 전부터 40~50여 가지의 천연물질을 연구해 혈액순환까지 개선해 주는 천연파스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천연재료 파스는 상처치유 효과가 탁월한 황백나무 줄기껍질 분말과 치자나무 열매, 토르마린 광석, 흑운모 등 20여 가지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냄새와 자극이 없어도 소염, 진통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수는 '일반 파스보다 효과 지속시간이 2



건양대 의과대학 장감용(50) 석좌교수가 천연물질을 혼합해 개발한 냄새와 자극 없는 파스.

배 이상이며 천연 파스를 붙였을 때 통증부위의 평균 혈류속도가 현저히 증가돼 증상이 완화된다'며 '냄새가 없기 때문에 서양인을 위한 수출용으로 적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연재료 파스는 지난해 미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아 의약품으로 등록됐으며 현재 시제품으로 만들어져 미국 내 병원에서 임상실험이 진행 중이다. 장 교수는 '임상실험이 마무리 되면 미국과 유럽 등에 수출할 계획이며 국내

에서도 제약회사 등과 연계해 판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건양대에서 제약공학과 재료공학 등을 강의하는 장 교수는 서울대 공과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드 대학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천연 파스 외 30여 건의 특허 및 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있다.

“상품 대신 특허기술을 팝니다”

디지털산업단지 내 제로원시스템의 박복태 대표는 발명가다. 지난 '86년 'SML 발명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19년 동안 특허나 기술, 아이디어를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유동 IP(인터넷 프로토콜)를 이용한 단말기 제어장치'나 '장난감 로봇 원격 제어장치' 등 25개 품목을 기업에 팔았고 현재 남아있는 특허(실용신안 포함)도 20개에 달한다. 박 대표는 '중학교 때 벽력이 떨어져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이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명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즉 번개와 같은 자연에너지를 인위적으로 원하는 시

기에 원하는 양만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현재 네트워크를 통한 화상통신 단말기의 전원제어 방법, 초음파를 이용해 필터 교체가 필요 없는 정수기, 목과 머리의 무게에 맞게 소재를 이원화한 건강배게 등 다양한 아이디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박 대표는 '제품이 나오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원리를 이해해야만 갖가지 기능을 추가한 신기술, 아이디어 상품이 나올 수 있다'면서 '그동안 기술을 제안하기 위해 최고경영자와 면담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전했다.

동아화성, 자동차 진동 줄이는 부품 특허 취득

동아화성(대표 임경식)은 차량 내 소음과 진동을 줄여주는 자동차용 부품(제진재)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제진재는 차량 엔진과 구동축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시켜주는 것으로, 중전 제진재가 복층구조여서 제조단가가 비싸고 중량이 많이 나가 차량무게를 증가시켜 연비를 떨어뜨린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번 제품은 단층으로 줄이고 고온에서도 방진기능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동아화성 관계자는 '중전에는 복층 구조의 제진재였으나 이 제품은 단층으로 만들었다'면서 '따라서 원가 절감 효과는 물론 고급차량용 제진재 시장진출에도 파란 불이 켜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효과적인 특허관리를 위한 10가지 전략 ⑨

협상단계에서는 기술의 전모를 밝히지 마라

각종 제품 공급계약 또는 기술이전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정부 인허가 취득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스코드 및 설계도 등 핵심기술을 요구하여 자료를 제공받은 후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파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협상단계에서 핵심기술의 전모를 제공하는 것은 위험하다.

사례1 국내단말기 제조업체 기술 해외 유출건

국내의 한 단말기 제조업체인 A사가 외국기업과의 무선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에서 요구한 무선데이터 단말기용 모델기술관련 자료를 제공하였으나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회피하여 8백억 상당의 피해를 입힐 뻔 하였다.

사례2 E사(社)의 중국강제인증(CCC) 피해사례

2003년 4월 칫솔살균업체인 E사(社)는 수출을

제한 중국의 가전제품 제조업체인 CH일렉트로닉으로부터 중국강제인증을 따는데 필요한 기술과 제품정보를 요구받고 이를 제공하였다.

CH일렉트로닉은 E사(社)부터 가져간 기술·제품정보를 이용해 100% 동일한 칫솔살균기를 생산, 본래 가격의 절반으로 마케팅하여 일본 홈쇼핑업체와 계약하였다.

이로 인하여 E사(社)와 일본 홈쇼핑 업체의 대규모 칫솔살균기 수출 계약이 파기되었다.